열 받지 말고 충만함 발산

(호세아 7:1~16)

4.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5.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6.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7.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9.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10.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열 받지 말고 충만함 발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열 받지 말고 충만함 발산'
화났을 때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열 받는다는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만화를 보면 화가 났을 때에 귀에서 연기가 푹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머리에 스팀이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골 때린다, 뚜껑이 열린다, 빡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모두 화가 났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은 마음에 화기(火氣)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불이 붙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불이 붙은 상태로 사는 삶이야말로 지옥의 삶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꼭 화가 나지 않더라도 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 받으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열은 곧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열을 내는 에너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발산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해온 단어가 바로 접촉입니다. 구체

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앎이란 히브리어 '야다'에서 파생된 '다아트'입니다.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부부가 동침함으로써 서로를 알게 되듯이 체험적으로 알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그 느낌으로 아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접촉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한 비유가 하나 제시됩니다. 화덕의 비유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왕과 지도자들에게 아첨하여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들이 실제로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에 참여해서 육체적인 간음도 행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는 왕과 지도자들에게 아첨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화덕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4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잠깐 화덕에 불을 지피지 않을 뿐이지 빵을 굽는 화덕은 늘 뜨겁습니다. 간음하는 자들의 마음이 화덕처럼 시종 달궈져 화로 가득 찬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음에서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화덕처럼 열 받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을 보면 백성들이 치안부재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이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떼로 노략질하는 폭동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LA폭동사건이나 뉴욕 정전사태가 떠오릅니다. 치안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가게에 들어가 마구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선민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게 된 이유를 바로 이들의 마음이 화덕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화덕은 크고 두껍게 만들어진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뜨겁게 달궈서 밀가루 반죽을 붙여두면 빵이 구워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화덕이 시종 열을 품고 있는 것 같이 선민들의 마음이 시종 달궈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들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접촉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타락하여 마음으

로 세상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세상과 접촉하는 상태가 바로 간음입니다. 체험적 앎을 의미하는 '야다'라는 말의 의미를 사용하자면 세상과 동침하여 그 느낌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과의 동침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멋진 외제차를 보고 부러워하며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마음에서 외제차와의 동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승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승진과 동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얼핏 당연한 것 같지만 분명한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접촉하게 되면 느낌이 있습니다. 세상에 접촉한 마음이 받는 느낌은 불기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접촉하면 열 받아 사는 것입니다.

꼭 화가 나서 열 받는 것이 아니어도 세상과 접촉하면 마음은 열 받게 됩니다. 선민들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마음이 돈에 접촉하게 된 것이고 돈에 의해 마음에 느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달궈진 화덕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찬 기운이 아니라 굳이 달궈진 화덕에 비유한 이유는 영적 간음으로써 지옥의 삶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지옥의 특징은 불이 꺼지지 않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이 앞당겨진 삶이란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고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느끼는 삶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접촉이 일어난 지옥의 삶은 설령 세상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돈과 접촉시킨 사람이 바라는 대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 잠깐 화덕에서 불을 뺀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돈이 벌리니 기쁘고 통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곧 마음은 이전과 다름없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만족이란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서 만족하였다면 논리적으로는 더 이상은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기뻐해도 그것이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욕심이 더욱 생겨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고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기쁨과 만족이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것 같더라도 그것은 빵을 부풀리기 위해 잠깐 불을 제거한 것처럼 일시적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전과 다름없는 과열 양상이 벌어집니다.

호세아는 선민들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과 접촉

하고 있다면 화가 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열 받는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 받는 것이 뜻하는 대로 마음에 불이 붙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불은 이윽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벌건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길거리에서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강도짓을 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왕과 지도자층의 사람들은 백성들을 돌보기를 망각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을 합니다.

5~7절을 보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 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모든 면에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에 대한 추구가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될 정도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과열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상태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3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여섯 명(스가랴 샬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이 바뀌게 되는데, 므나헴이라는 왕을 제외한 다섯 명이 암살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6절의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라고 한 것 같이 잔치에서 웃으며 왕을 칭찬하고 아첨하던 자들이 그 다음날 왕을 죽이고 정권을 뒤집는 반역을 일으키는 상황이 반복되리라는 것입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맞이하고도 이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마음이 화덕처럼 불기운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세상과 접촉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열을 받고 있으니 삶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을 숙청해서 새 왕을 세우고 곧이어 그 왕도 맘에 들지 않으면 또 숙청을 합니다. LA폭동 같고 뉴욕 대정전이 일어났을 때에 도시가 암흑천지가 되어 폭도들이 횡횡했던 것처럼, 마음에 열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삶은 물론이고 나라를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라고 하였고 2절에서도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바로 탈선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이 세상 것에 접촉해서 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선민들은 그러한 시원함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통해 얻고자 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풍요와 다산이 주어졌지만 잠깐의 시원함을 느끼려던 찰나에 마음은 더 뜨겁게 달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원함을 찾아서 세상에 마음을 접촉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덧없이 지나가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달궈진 화덕처럼 열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이후로 배우자에게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자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찾아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열을 받게 될 뿐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겠다고 결혼해서 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기뻐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접촉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결코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붙이고 있는 한 마음의 열 받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듯이 때로는 자녀를 통해 기쁨과 만족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번이나 일어나겠으며 일어나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잠깐 빵이 부풀려지는 동안에만 잠깐 화덕에 불을 빼는 것처럼 시원함이 느껴지겠지만 얼마안가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열 받을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국제중학교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입학할 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국제중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녀는 더 이상 우등생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우등생이 되기 위해 피를 말리는 경쟁을 강요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또 다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과정이 반복되고 일류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같은 과정이 반복되고 졸업하고 취직하여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 지옥의 연쇄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고 화기를 머금고 사는 지옥의 삶을 평생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삶도 있습니다. 바로 앞장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접촉시키고 유지하는 사람의 인생전체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부의 마음에 기쁨을 주듯 하나님과 마음이 접촉한 사람은 세상을 향한 갈증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힘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니 배우자에게 화낼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배우자에게 발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열 받아 괴로워하던 배우자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에게 마음을 붙이고 기쁨과 만족을 찾는 삶을 지속한다면 마음의 화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달팠는데 배우자까지 나를 이용해 기쁨을 얻으려 하니 삶은 더욱 고단해지기만 합니다. 서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부관계 또한 망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아내만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남편만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지금 화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배우자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마음을 붙여서 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화가 나는 이유도 자녀에게 마음을 붙여서 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마음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열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9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화덕에 붙은 면은 새까맣게 타고 다른 면은 익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몸이 있는 세상을 향하게 된다면 뒤집지 않은 전병의 한 면이 타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선민에게는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힘은 강인한 육체와 창과 방패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선민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선민들이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공 받은 선민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접촉한다면 하나님으로 부터 주어지는 힘을 세상에 발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인 주제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힘을 찾으려 한다면 선민으로써의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붙여 열 받으면서 살수록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지옥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붙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열 받게 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화덕처럼 뜨거운 열기를 머금

고 살아가는 지옥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중단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과 마음의 접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나는 육체를 입은 인격이라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배로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면을 가지고 있는 전병과 같아서 내 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죽음이라는 보배를 의식이라는 질그릇 속에 늘 담고 다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열 받아 지옥을 앞당겨 사는 대신에 하늘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 하늘의 기운을 발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시기 위하여 내 마음의 접촉을 기다리며 당신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열 받는 삶을 과열상태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배로 삼아 육체 입은 의식의 질그릇에 담게 하여 주셔서 열 받는 삶이 죽게 하시고 하늘 기운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발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